

국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개선방향

현행 회계예규상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계약 당사자들의 책임 한계가 모호하고 일방적으로 발주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현장에서 원활한 공사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여 왔고, 더욱이 WTO에 의한 국내 건설시장 개방시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분쟁을 가속화할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내 건설공사 참여자들은 그 동안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조건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기보다는 건설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유지되어 온 전통적 관행에 의하여 공사를 수행, 이러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등한시하여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국내 건설시장이 외국 업체에 전면 개방되면 이러한 전통적인 관행은 한 순간에 버려지고 당장 선진형 공사계약 조건에 의한 공사 수행이 대두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건설시장 규모와 유럽 전체 건설 물량에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및 유럽의 중심 국가로서 통독과 더불어 일고 있는 건설 붐을 분석하고 이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행되고 있는 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현재 개발되어 실행 중인 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발견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최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에서는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선진형 공사계약 일반조건인 미국의 C.O.E 공사계약 일반조건, 유럽의 FIDIC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일본의 공공공사 표준 청부 계약 약관과 비교하여 개정될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개정될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